

보도희망 날짜	(즉시 보도 가능)	담당부서	성북문화재단 아리랑도서관/ 성북예술창작터
		전시담당	김소원(02-6906-3172) *성북예술창작터 김호진(02-6906-9360) *아리랑정보센터
첨부자료	총5쪽, 이미지10매	홍보담당	지강숙(02-6906-9271)

[문인사기획전 4] '지금 여기 박완서'

▶ 전시 개요 및 작품 정보

전시 제목	문인사기획전 4 '지금 여기 박완서'
전시 일시	-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 관람시간: 10시~ 18시 (매주 월요일 및 12/25, 1/1 휴관)
전시 장소	성북예술창작터
주최 및 주관	주최: 성북구/ 주관: 성북문화재단
기획 및 진행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정보도서관 & 성북예술창작터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지개다리사업
오프닝 행사	2018년 12월 13일 17시, 성북예술창작터(성북로 23)
연계 행사	◦ 낭 독 극 : 『그 남자네 집』, 성우 윤소라 x 가야금 싱어송라이터 정민아 ※ 2018년 12월 18일(화) 19시 30분/ 성북예술창작터(성북구 성북로 23) 2층 ◦ 좌 답 회 :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이선미(국문학자), 고명철(문학평론가), 임옥희(여성학자), 호원숙(수필가, 박완서 장녀) ※ 2018년 12월 20일(목) 19시 30분/ 라파엘센터(성북구 성북동1가 8) 5층
홍보 이미지 (전시포스터)	

	 지금 여기 박완서 성북 문인사 기획전 4 2018.12.13.(목) - 2019.1.22.(화) 성북예술창작터 오프닝 2018.12.13.(목) 17:00 관람 10:00 - 18:00 (매주 월, 12.25(1.1 휴관)) 무료 관람 전개행사 ①-당독극 12.18(화) 19:30 성북예술창작터 ②-가담회 12.20(목) 19:30 다독당센터 문의, 아티스트지원 02-5295-9996 성북예술창작터 02-2030-9988
소설가 박완서	박완서 (1931-2011) 1931년 9월 15일, 경기도 개풍군 박적골에서 태어났다. 지금의 황해북도 지역으로 개성 외곽에 위치한 작은 시골마을이었다. 1938년, 당시로서는 예외적이게도 교육열이 강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서울로 옮겨와 매동초등학교, 숙명여고를 거쳐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1950년, 공교롭게도 입학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6.25가 발발하여 학교를 그만 두고 미8군 PX 초상화부에서 근무했다. 1953년 결혼하여 4녀 1남을 두었다. 마흔이 되던 해인 1970년, PX 시절 만났던 화가 박수근과의 인연을 토대로 한 작품 『나목』으로 <여성동아> 여류 장편소설 공모전에 당선되며 등단했다. 1988년에는 남편과 막내아들을 연이어 떠나보내는 커다란 개인사적 위기를 겪었다. 2011년 1월 22일, 고향인 박적골을 꼭 빼닮은 구리시 아치울 ‘노란집’에서 담낭암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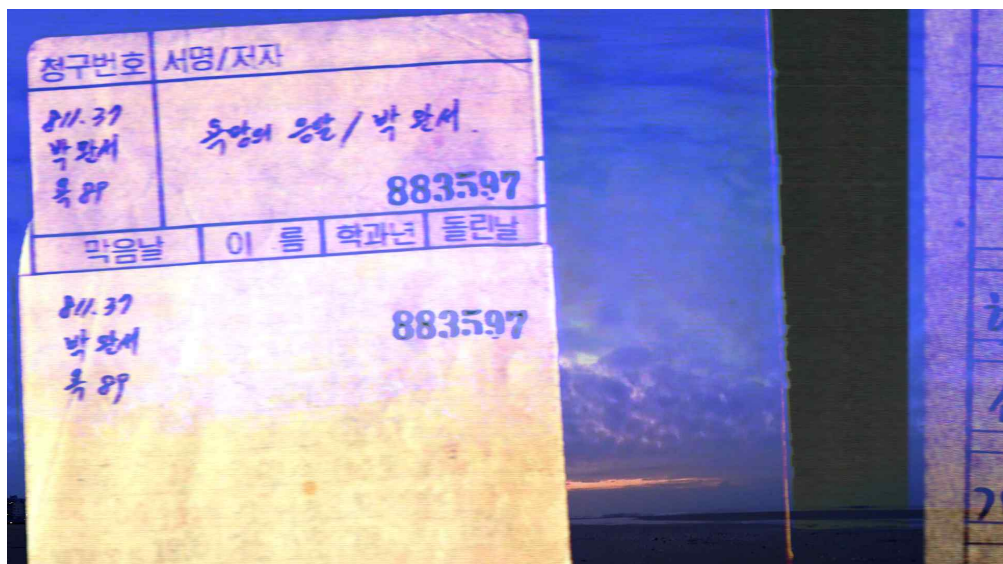
	로 영면하기 직전까지 줄곧 당대의 ‘현역’ 작가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이어나가며 40여 년간 80여 편의 단편과 15편의 장편소설 그리고 산문집, 동화집, 콩트집 등의 풍성한 문학적 유산을 남겼다.		
주요 작가 소개 · 이미지			
	참여 작가	구 분	내 용
	김도희	설치	『나목』에 깔린 이미지를 박완서의 정서적 원형으로 보고 벽을 연마기로 갈아내 드러난 지층을 활용한 설치작업
	한승훈	영상	박완서 책의 흔적과 석양을 오버랩한 영상
	이은주	사진	르모 컴퓨터 앞의 박완서를 찍은 사진
	조민숙	대나무 부조작품	박완서의 내적특성을 대나무로 표현한 부조
	윤소라x정민아	낭독극	박완서의 『그 남자네 집』을 바탕으로한 정윤소라, 가야금 싱어송라이터 정민아의 공연
	박동명	인터뷰 영상	총 6명의 인터뷰 영상 촬영 및 편집
	장시각융합소(홍장오)	설치작가	전시공간 디자인
	1. 김도희 (설치) <살갓 아래의 해변: 나목 裸木>(2018)은 김도희 작가의 서정이 자라난 핵심적 장소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며 자신의 삶과 예술의 깊은 상호성을 해석한 설치작업이다. 고향 부산 영도 갯강이 마을의 노동, 소음과 냄새 질펀한 인간사의 풍경이 연동된 기억을 탐구한 김도희 작가는 낡은 선박의 따개비와 녹을 벗기듯 벽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먼지를 그 아래 해변처럼 쓸어 모았다. 진동과 먼지를 동반한 격렬한 과정을 거치자 모습을 드러낸 벽 아래의 중첩된 지층이 삶 속 사연처럼 개인의 경험이 품은 미적 가치를 직관한다. ‘나목’은 박완서가 김도희와 같은 나이에 발표한 등단 소설이며, ‘나목’ 전체에 짙은 상징적 이미지를 박완서의 정서적 원형으로 인식하고 깊이 공감, 청회색 계열의 페인트가 여러 겹 쌓인 기존 창작터 벽 위에 상처를 품고 새로 돋는 살결과 생명을 상상하며 색을 올리고 작업을 했다. 자신의 몸에 깃든 경험을 후벼 파듯 깨움과 동시에 다시 새기는 특성은 박완서의 소설 쓰기와의 상통한다. 문학과 미술이 예술적 깊이 속에서 이해하고 만나는 순간이다.		



-작업과정 영상 캡처

2. 한승훈 (영상)

도서관과 헌책방에 남아있는 박완서의 책들에 남겨진 흔적을 영상화한 <Re: Sunset>(2018)은 박완서가 사라져버리는 기억을 책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을 이어받아 오래된 책의 흔적들을 다시 건져내고 그 증거를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시간을 견디어낸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세월은 많은 사람들의 안도의 시간이다. 그 작은 안도와 공감이 모여 다시 읽히고 회자되는 것도 결국 석양처럼 붉게 타오르다 사라질지 모른다. 다시 그 시간들에 불을 피우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한 작업이다.



-영상작품 캡처

3. 이은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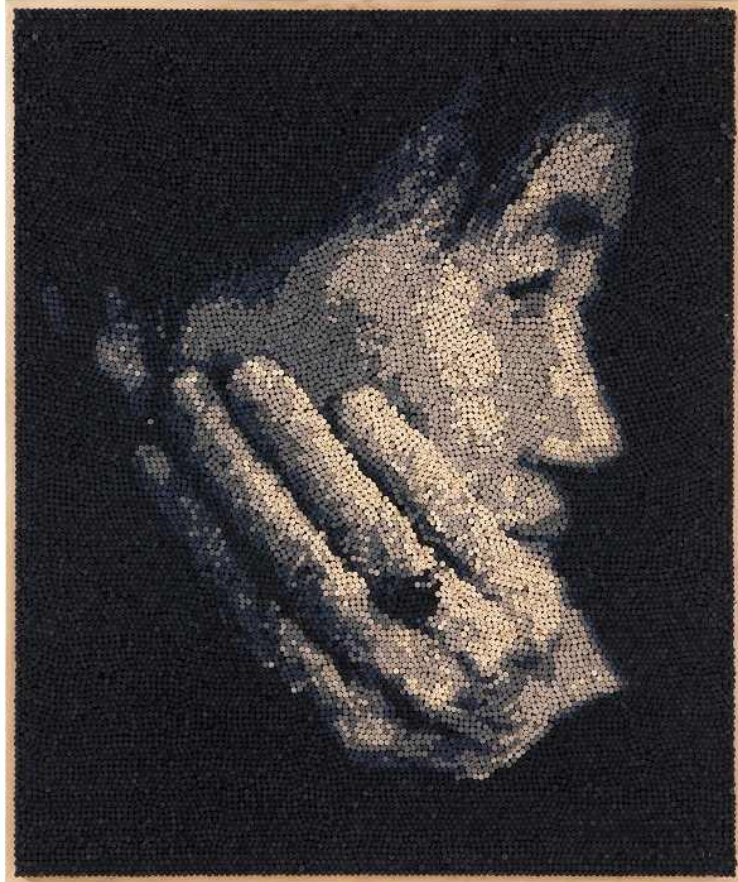
1993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친선대사였던 박완서와 함께 소말리아 난민촌을 방문했던 이은주 사진가는 난민들의 참담한 모습에 오열, 잔잔하게 가슴을 울리는 좋은 말씀으로 여정 내내 일행들의 스승이자 어머니가 되어 주셨던 박완서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작품 <박완서>(1993_ 2018 재제작)은 중앙 선데이 에 연재되었던 <사진으로 만난 인연>을 위해 박완서의 방이동 아파트 서재에서 찍은 것이다.



- <박완서>_Pigment Print_ 100x66.6cm_ 1993_ 2018 재제작)

4. 조민숙 (부조)

조민숙 작가는 십년 넘게 동백나무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이후 대나무로 여러 인물들의 얼굴을 제작하고 있다. 선비정신을 상징하는 대나무의 특성에 입각하여 미학자, 철학자, 음악가, 건축가, 미술사가, 문학 작가 등 각 분야의 선각자들의 얼굴을 표현하였다. 부조작품 <1310(박완서)>(2013)에서는 해방과 한국 전쟁 같은 시대 속에서 고투하고 개인적인 상실을 겪으면서도 소설과 에세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의 잔잔하고 세밀한 정서를 보여주었던 박완서를 표현하고자 했다. 돌아가셨지만 어둠 속에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을 위해 검은색과 흰색으로 작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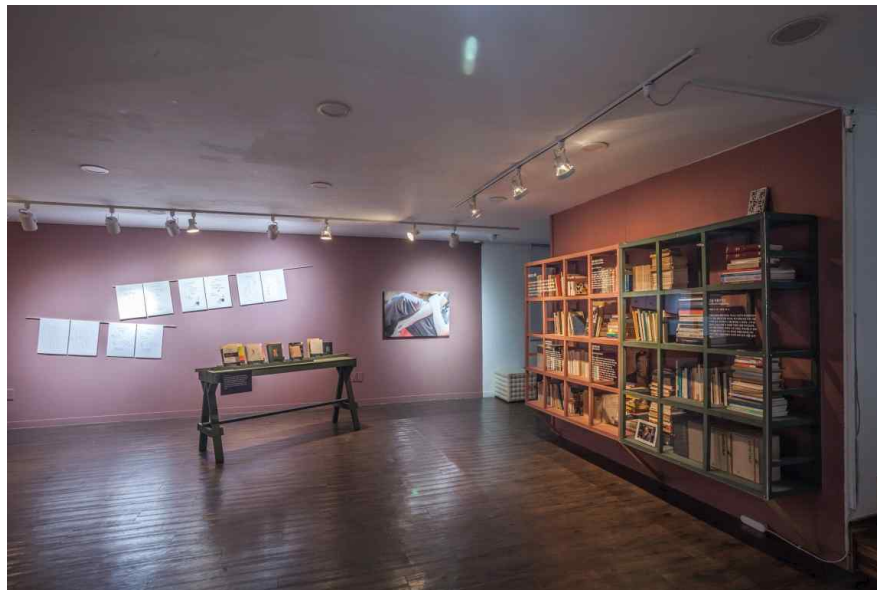
-<1310(박완서)>_ Mixed Media_ 61x75cm_ 2013

지난 전시
및
작년 전시
설치 전경

- 문인사기 기획전 1-신경림 <사진관집 이층>
2015년 10월 13일 ~ 10월 30일
- 문인사기 기획전 2-조지훈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2016년 11월 16일 ~ 12월 09일
- 문인사기 기획전 3-황현산 <밤이 선생이다>
2017년 11월17일 ~ 12월 17일



-문인사 기획전 3- 황현산 <밤이 선생이다> 설치 전경1



-문인사 기획전 3-황현산 <밤이 선생이다> 설치 전경2